

#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박 회 성

이 진 숙

박 초 아

부교수 정 민 자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

*Instructor* : Hee Sung Park

Jin Sook Lee

Cho A Park

*Associate Professor* : Min Ja Jeoung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1) actual rates of sexual intercourse and relating variables among college students and workers and 2) the trend of premarital sexual attitudes. Data for 538 were used Reis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Actual sexual intercourse rates is higher than the past especially in women, ye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2) Double standard for premarital sexuality remains in our culture. The degree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to man is higher than that of woman. Both man and woman have more permissive premarital sexual attitudes to man. Nevertheless, the result that the degree to which each sexual behavior was accepted increased with each relationship stage implicates "permissiveness with affection" to be the sexual standard accepted by young adults.

3) Age is higher,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re more liberal, and the extend of peer group'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is higher, the rate of sexual intercourse is higher both man and woman.

## I. 문제제기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갖는다. 남녀간의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의 표현은 이성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즉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접촉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미혼의 남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며, 개인의 성행동이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결혼 전까지 성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기대하면서, 동시에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는 성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 청년기의 연장, 상업적 성문화의 발달 및 남녀평등주의 같은 가치의 변화가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김영옥, 1983)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청년기가 연장됨으로써 두드러진다. 청년기를 사춘기에 시작하여 결혼과 직업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상주, 1977)으로 볼 때, 성적 발달이 점점 빨라지고 취업과 결혼 연령은 늦어져 성인 역할이 유보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청년기는 성적 욕구가 강렬한 시기인 반면, 사회는 혼전의 성을 규제하므로 사회적 규범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혼전 성행동에 대해 합의된 규범이 없는 현 상황에서 청년기 연장 현상은 새로운 성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개인의 활동의 자유가 커지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등 급격한 변화 시기에 있는 대학생 연령층의 미혼남녀에게, 성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및 정체감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미혼 남녀의 성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청년기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

론조사(중앙일보, 1995)에 의하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50대 여성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20대 여성은 61.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 미혼남성의 성경험율은 61.1%, 여성은 2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행동이 비효과적인 피임, 예기치 않은 임신, 너무 빨리 부모가 되는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Miller & Moore, 1990). 한편 대학생 연령층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상의 변화 추세와 이에 관련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다(Bell & Coughy, 1980; King et al., 1977; Small & Luster, 1994). 또한 혼전 성행동을 단순히 사회문제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 혼전 성경험이 이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후의 관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Cate et al., 1993)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들(이귀현, 1985; 홍문식, 1989)은 성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성지식이나 순결에 대한 가치 등에 초점을 둔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학생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혼전 성에 대한 태도를 결혼관의 일부로만 취급하거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혼전 성행동을 다루어 왔다.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김영옥, 1983)도 있었으나,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계의 사회정서적 측면에 있어서의 성의 역할은 무시해 왔다. 따라서 청년기의 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청년기 성에 대한 이해와 이후의 결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성행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혼전 성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혼전 성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 1) 미혼남녀의 전반적인 성행동 실태는 어떠한가?
- 2) 미혼남녀의 혼전 성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3) 미혼남녀의 성행동은 관련변수(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이성관계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혼전 성행동의 경향

미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성관계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전국조사에 따르면, 15세경에 여학생의 약 1/4이, 19세경에는 4/5가 성경험을 하였다. 또다른 1988년 조사에서는, 10대 남학생의 1/3이 15세경에, 86%가 19세경에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iller & Moore, 1990에서 재인용). 또한 전반적으로 혼전 성경험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대생의 혼전 성경험율이 급증하여 남녀간의 성경험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전 성경험을 한 적이 있는 남자 대학생의 비율은 1965년과 1980년 사이에 12.3%가 증가한 데 비해, 여대생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34.8%가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진한 애무를 경험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그 증가폭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Robinson & Jedlicka, 1982).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국내 여론조사(중앙일보, 1995)에서는 첫경험 연령이 남성 20.6세, 여성 21.6세로 나타났고, 남녀대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옥, 1983)에서 남성 52.2%, 여성 6.7%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1988)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 39.4%, 여자대학생 3.3%가,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각각 47.4%,

12.3%가 성경험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성행동으로 성교만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성행동은 키스와 애무, 성교 등보다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므로(Vener & Stewart, 1974),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성행동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혼전 성에 대한 태도

핵가족의 출현 및 친족체계의 붕괴, 의학 및 피임기술의 향상, 그리고 도시의 상대적인 익명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해 유지되던 전통적 성규범을 해체시키고 있다(Reiss, 1960). 특히 강력한 영향력으로 등장한 상업적 성문화는 성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여 성을 죄악시하는 전래의 가치를 소멸시키고 있다(김영옥, 1983). 우리의 경우, 서구적인 가치의 유입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전통적인 성적 금기억식 및 혼전 성행동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피임기술의 향상 및 여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혼전 성행동 및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Bell & Coughy, 1980; King et al., 1977; Small & Luster, 1994)은, 1960년대 이래 남녀 대학생의 혼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성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거의 유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Robinson 등(1991)은, 남성에게 보다 많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행인 이중기준이 최근 거의 유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성에 대해 더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며, 혼전 성경험도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Reiss(1960)는, 여성의 혼전 성행동에 대한 규제가 점점 약화되고는 있으나 실제행동과 규범에서는 여전히 이중기준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중기준의 근거가 여성을 가족제도에 규범적으로 강하게 연결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결

혼과 가족, 자녀양육에 계속 얽매이는 한 혼전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성경험을 적게 할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가족 내에서 남녀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이중기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혼전 순결이 절대적인 가치로써 간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미혼남녀의 혼전 성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남녀의 의식의 차이는 어떠한 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3. 혼전 성행동과 관련변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연령, 종교, 혼전 성에 대한 태도, 거주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감독 정도, 집단(대학생집단과 근로자집단), 동료집단의 영향력, 관계의 발전단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이성관계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개인요인

선행연구(김영옥, 1983)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성적 성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와 혼전 성행동은 부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종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여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상반되어 나타나므로(Talmadge, 1985에서 재인용), 종교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중에서 성에 대해 절제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혼전 성경험율이 낮았으며(Peplau et al., 1977),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혼전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이인숙, 1994). 태도와 행동의 전후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족요인

청년기 자녀들이 취업이나 학업상의 문제로 부모를 떠나 생활할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독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 거주형태는 부모의 통제나 감독과 관련되는 변수로서, 성행동과 관련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경험율이 낮다(Forste & Heaton, 1988; Zelnik, Kantner, & Ford, 198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목표나 성취, 직업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낮은 교육목표와 성취는 보다 높은 성행동 수준과 관련된다(Miller & Sneesby, 1988)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all과 Luster(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청년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경험율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김영옥, 1983)로 볼 때, 부모의 감독 정도도 성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사회요인

Delamater와 MacCoqudale(1979), 이경숙(1980)의 연구에서, 비대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dry 등(1975)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성경험율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를 계층의 주요 지표로 보고(Kinsey, 1948), 대학생집단과 근로자집단의 성행동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체로 동료가 부모보다 허용적이므로 동료가 준 저점일 경우 성경험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Reiss, 1967; Kaats & Davis, 1970). Newcomer 등(1980)은, 성행동과 태도는 동료집단의 실제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라고 '지각'되는 것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986)에서, 여학생의 73%, 남학생 50%가 성관계를 일찍 갖게 된 이유로 사회적 압력을 들었다(Cate et al., 1993에서 재인용). 따라서 동료의 성경험 정도에 대한 지각과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4) 이성관계요인

관계의 발전단계는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Delmater와 MacCorquedale(1979)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의 친밀도가 현재의 성행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혼전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Sherwin & Corbett, 1985; Talmadge, 1985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기에는 성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여성 95%, 남성 40%가 자신의 성행동의 결정요인은 애정 혹은 감정적 몰입이었다고 진술했다(Carroll et al., 1985).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을 육체적, 쾌락적 행위로 보고, 여성은 감정적인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Leigh(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혼전 성행동은 관계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하므로(Talmadge, 1985),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른 성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는 개인요인(연령, 종교, 혼전 성에 대한 태도), 가족요인(거주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감독 정도), 사회요인(집단, 동료의 성경험 정도에 대한 지각,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 이성관계요인(관계의 발전단계) 등이다. 부모의 감독 정도, 동료의 성경험 정도에 대한 지각,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 등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혼전 성행동과 혼전 성에 대한 태도 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1) 혼전 성행동

성행동은 이성간의 신체적인 접촉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성행동이란 성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Vener & Stewart, 197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전 성행동을 손잡음, 포옹, 키스, 가벼운 애무(상체를 중심으로 한 애무), 진한 애무(성기를 중심으로 한 애무), 성교 등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 2) 혼전 성에 대한 태도

혼전 성에 대한 태도는 혼전 성 허용성의 정도로 측정되며, '혼전 성 허용성'이란 혼전 성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말한다(Kelly, 1978).

'혼전 성 허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태도 척도는 Reiss의 혼전 성 허용성 척도를 재구성한 Sprecher 등의 연구(1988)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2개 문항으로서, 관계의 발전단계(I: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 II: 좋아하는 사이, III: 사랑하는 사이, IV: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따른 신체적 접촉 수준(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32개의 문항을 남성에 대한 견해(16문항), 여성에 대한 견해(16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키스를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 척도  $\alpha = .94$ , 여성 척도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이다. 사회계층에 따라 청년들이 당면하는 적응적 요구는 다르게 마련이므로(차재호, 1977), 대학생과 동

1) 예비조사에 따르면, 요즘 대학생들은 별다른 감정없이도 아는 사람과 손잡거나 포옹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전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손잡음과 포옹을 제외한 4개의 성행동 수준만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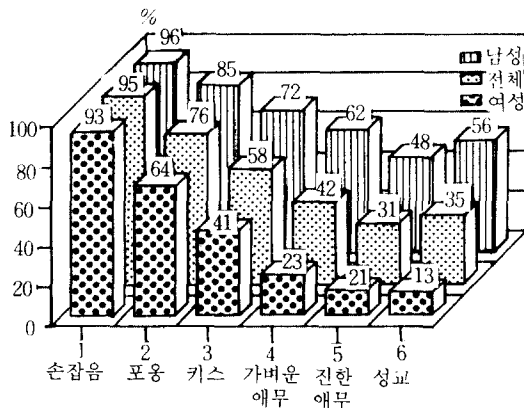
일 연령층의 근로자를 선택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학년 및 전공을 고려하였고, 근로자집단은 T방직, D나이론, H중공업, M백화점 등에 취업하고 있는 미혼남녀를 임의 추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질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1995년 4월 10일에서 4월 2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총 53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X<sup>2</sup>검증, t검증, 쌍체 t-검증, 분할표분석 등을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성 279명, 여성 259명으로서, 대학생이 263명, 근로자는 274명이다. 연령은 21-24세가 43.7%, 25-29세 29%, 20세 이하 27.3%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45.1%이며, 거주형태로는 자기 집 거주가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숙사 33%, 자취/하숙 26%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

미혼남녀 총 538명의 성행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그림 1), 성행동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경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손잡음, 포옹, 키스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험



〈그림 1〉 성행동 실태

을 하였으며, 성교를 경험한 사람도 35.2%였다.

성교 경험만을 남녀별로 살펴 보면, 남성 55.9%, 여성 12.0%로서 남성의 경험율이 훨씬 높았다. 김영옥(1983)의 연구에서는 남성 52.2%, 여성 6.7%가 성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성행동율의 증가가 미미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두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잡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1〉 참조). 즉 절대적인 성행동 경험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월등히 높아, 여전히 이중기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성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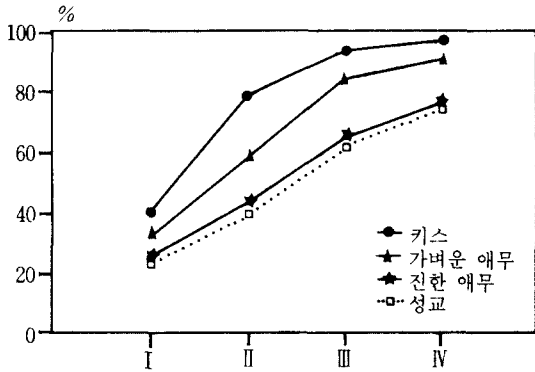
성행동 수준	남 성	여 성	X <sup>2</sup>
1. 손잡음	269(96.4)	233(92.8)	3.40
2. 포옹	236(84.6)	165(66.3)	24.18***
3. 키스	199(71.6)	107(43.0)	44.16***
4. 가벼운 애무	171(61.5)	52(20.9)	88.82***
5. 진한 애무	134(48.0)	32(12.9)	75.53***
6. 성교	156(55.9)	30(12.0)	110.96***

\* p<.05 \*\* p<.01 \*\*\* p<.001

##### 2. 미혼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

진짜 응답자의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른 성 허용 정도'를 살펴보면(그림 2-1, 2-2), 네개의 성행동 중 키스를 가장 많이 허용했으며,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의 순으로 그 허용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진한 애무와 성교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행동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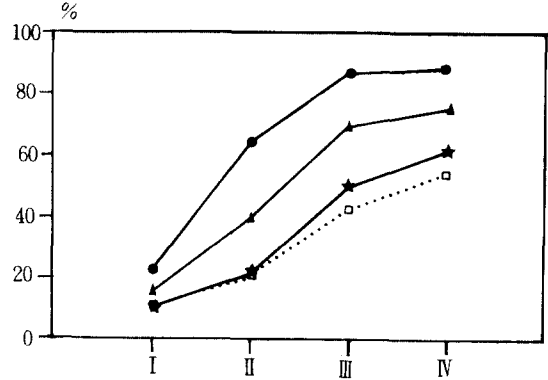
〈그림 2-1〉과 〈그림 2-2〉를 보면,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즉 서로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모든 수준에서 성 허용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남자라면,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라도 성교를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해 남녀 응답자 23%가 찬성했다. 좋아하는 사이라면 39%, 사랑하는 사이 61%,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경우에는 71%가 찬성했다. 이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른 혼전 성 허용성

I :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 II : 좋아하는 사이 III : 사랑하는 사이 IV : 결혼을 약속한 사이

(그림 2-1) 남성에 대한 견해



(그림 2-2) 여성에 대한 견해

에 비해 여성에 대해서는 각각 11%, 20%, 41%, 5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허용정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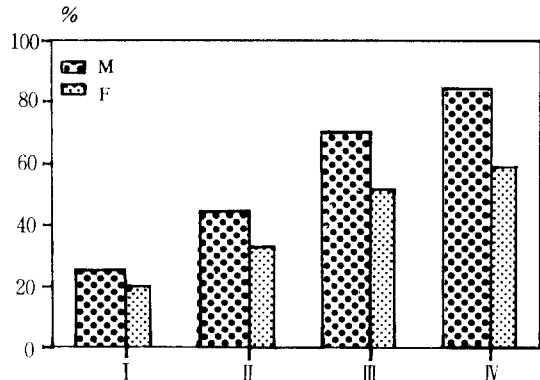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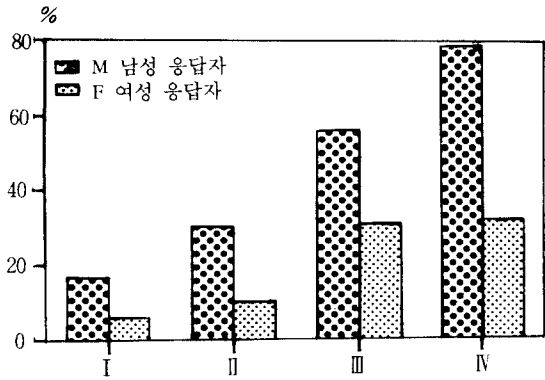
한편, 성 허용성의 증가폭은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남성에 대한 견해를 보면(그림 2-1),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1단계)에서 좋아하는 사이(2단계)로 발전하면 남성의 혼전 성교에 대한 허용정도가 16% 증가하고, 좋아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3단계)가 되면 22%, 결혼을 약속한 사이(4단계)가 되면 10%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해서는 허용정도의 증가폭이 각각 9%, 21%, 11%로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그림 2-2).

그러나 네개의 성행동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애정의 발전단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에 대해서는(그림 2-1), 키스와 가벼운 애무의 경우 1-2단계와 2-3단계의 변화가, 진한 애무와 성교에서는 2-3단계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여성에 대해서는(그림 2-2), 키스를 제외한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에서 2-3단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남성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정도면 키스(78%)나 가벼운 애무(58%)를, 진한 애무(64%)나 성교(61%)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허용한다. 이에 비해 여성에 대해서는 가벼운 애무(68%)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만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 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애정이 증시되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성 허용정도(남성에 대한 견해, 여성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t-검증), 전체적으로 남성응답자가 여성응답자보다 성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교'에 대한 허용정도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그림 3-1, 3-2),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의 성경험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도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외국의 연구결과(King et al., 1977)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국내 연구결과(이인숙, 1994; 김영옥, 1983)와는 일치한다.

한 개인이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해 상이한 성행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쌍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2), 남녀 응답자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남녀들이 이중적인 성행동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규범'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외국의 결과(Sprecher et al., 1988; King et al., 1977)와는 상반된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혼전 성 허용성(성교)

I :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 II : 좋아하는 사이 III : 사랑하는 사이 IV : 결혼을 약속한 사이

<그림 3-1> 남성에 대한 견해

<그림 3-2> 여성에 대한 견해

<표 2> 한 개인의 남녀에 대한 혼전 성 허용정도(쌍체 t-검증)

성행동 수준	관계의 발전단계	남성응답자(279)		쌍체 t-값	여성응답자(259)		쌍체 t-값
		남성에 대한 견해	여성에 대한 견해		남성에 대한 견해	여성에 대한 견해	
키스	I	2.33	2.01	5.85***	2.14	1.59	8.08***
	II	3.23	2.98	6.43***	2.95	2.60	6.09***
	III	3.59	3.42	5.08***	3.42	3.13	5.80***
	IV	3.71	3.52	4.82***	3.52	3.22	5.72***
가벼운 애무	I	2.04	1.72	6.03***	1.88	1.38	7.13***
	II	2.79	2.48	6.87***	2.49	2.08	6.92***
	III	3.38	3.14	5.95***	3.02	2.65	7.33***
	IV	3.52	3.33	4.94***	3.17	2.79	7.47***
진한 애무	I	1.79	1.52	5.90***	1.74	1.29	6.64***
	II	2.38	2.06	7.14***	2.09	1.63	7.49***
	III	3.00	2.74	5.84***	2.59	2.20	6.75***
	IV	3.35	3.15	5.11***	2.77	2.32	7.28***
성관계	I	1.83	1.54	5.68***	1.65	1.21	6.75***
	II	2.29	2.00	6.57***	1.95	1.45	7.80***
	III	2.88	2.59	7.09***	2.43	1.96	7.60***
	IV	3.27	3.06	5.12***	2.62	2.10	8.12***

\* p<.05 \*\* p<.01 \*\*\* p<.001

2) 여기서는 6개의 성행동 수준 중에서 관련변수와의 관계가 가장 많이 보여질 것으로 간주되는 성교 경험만을 분석하여



〈표 3〉 관련변수에 따른 미혼남녀의 성행동

빈도(%)

요 인	변 수	구 분	남 자	여 자
개 인 요 인	연 령	20세 이하	12(23.1)	2( 2.3)
		21-22세	5(41.7)	10(10.8)
		23-24세	46(59.0)	12(24.0)
25세 이상		93(67.9)	6(33.3)	
		$\chi^2$	31.99***	22.52***
	종 교	있 음	70(59.8)	8( 7.2)
		없 음	80(52.3)	21(15.8)
		$\chi^2$	1.53	4.26*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보 수 적	9(32.1)	3( 2.8)
		중 간	58(44.6)	14(13.7)
		개 방 적	84(73.7)	8(34.8)
		$\chi^2$	27.69***	22.17***
가 족 요 인	거주형태	자 기 집	45(38.8)	7( 7.3)
		자취/하숙	86(67.7)	2(13.3)
		기 숙 사	25(69.4)	21(15.2)
$\chi^2$		23.64***	3.38	
	부의 교육정도	중졸이하	69(61.6)	16(18.8)
		고졸이상	71(51.1)	10( 7.1)
		$\chi^2$	2.79	7.17**
	부모의 감독정도	엄 격 합	41(62.1)	12(10.0)
		보 통	40(58.8)	6( 9.2)
		엄격하지 않음	75(51.7)	12(18.8)
		$\chi^2$	2.30	3.67
사 회 요 인	집 단	대 학 생	67(44.4)	8( 7.5)
		근 로 자	89(69.5)	22(15.6)
		$\chi^2$	17.79***	3.78*
	동료의 성경험 정도	25% 미만	7(15.9)	10( 6.3)
		25-50%미만	28(42.4)	9(18.0)
		50-75%미만	38(63.3)	3(16.7)
		75% 이상	83(76.9)	6(42.9)
		$\chi^2$	54.03***	19.97***
	동료의 성경험 압력	있 다	45(58.4)	8(25.8)
		없 다	110(54.7)	22(10.1)
		$\chi^2$	0.31	6.33**
이성관계요인	관계의 발전 단계	I	2(40.0)	0( 0.0)
		II	4(23.5)	2(15.4)
		III	19(63.3)	4(14.8)
		IV	19(82.6)	8(38.1)
		$\chi^2$	20.70**	6.37

\* p&lt;.05 \*\* p&lt;.01 \*\*\* p&lt;.001

### 3. 관련변수에 따른 미혼남녀의 성행동<sup>2)</sup>

〈그림 1〉에서 살펴 보았듯이, 남녀간의 성경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을 통제한 후 관련변수에 따라 성경험율이 어떻게 다른 지를 분석하였다(표 3). 여기서는 다양한 성행동 수준 중 '성교 경험 有 비율'만을 표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경험율이 높아지며, 종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Reiss(1967)는, 전통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과 백인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김은자(1978)의 연구에서도 종교의 유무와 혼전 성경험간의 관계가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한다.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sup>3)</sup> 남녀 모두 태도와 행동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혼전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경험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태도와 행동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김영옥, 1983; 이인숙, 1994)결과와 일치한다.

거주형태에 따른 성경험율은 남성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성의 성경험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에 따라 거주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단을 통제하여 재분석한 결과,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자취/하숙과 기숙사가 각각 50%,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가 성경험이 있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취/하숙 75%, 자기집 52%, 기숙사 26%의 순으로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경험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만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경험율이 높았으며, 이는 Small과 Luster의 연구(1994)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감독정도는 남녀 모두 성경험율과 관련이 없었다. 한편, 동료의 성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남녀 모두 성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료로부터 성경험 압력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만 유의했다. 이처럼 동료변수가 부모변수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청년기에 이르면 태도형성과 행동수행의 준거점이 가족으로부터 동료집단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Sebold, 1971:3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녀들이 부모와 성에 관한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가지는 경우 거주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부모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료와 부모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 집단과 근로자 집단간의 성경험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녀 모두 근로자 집단의 성경험율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성경험율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Udry 등(1975)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국내연구(이경숙, 1980; 김영옥, 1983)와는 일치한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관계의 발전단계와 성경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애정과 헌신의 정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혼전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Sherwin & Corbett, 198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성의 경우에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본 변수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만을 선택함으로써, 절대적인 빈도가 적은 데 기인한 것 같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의 성경험율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제시하였다.

- 3)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남성척도만을, 여성은 여성척도만을 사용하여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남성에 대한 견해는 남성의 행동을, 여성에 대한 견해는 여성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 혼전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행동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외국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성행동일수록 남녀차가 적어지고 여성의 전반적인 성행동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후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혼전 성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 성에 대한 혼전 성 허용정도가 여성에 대한 허용정도보다 높다. 남성응답자가 여성응답자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녀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성행동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의 성행동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하지만,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잔존하고 가족내 남녀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로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성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아져, 이중기준적 요소가 강하게 존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애정을 전제로 한 성 허용성이 점차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전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동료의 성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성경험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생 집단보다는 근로자 집단의 성경험율이 높았다. 종교의 유무, 부의 교육정도, 동료의 성경험 압력 등은 여성의 경우에만, 거주형태와 관계의 발전단계는 남성의 경우에만 성경험율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남녀 모두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여성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을 왜곡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및 도덕기준을 제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시도로서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른 성경험율을 분석하였으나, 이 변수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변수나 커플관계요인 등 보다 많은 관련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현상 기술의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앞으로는 성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성행동이 이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 이것이 이후의 커플관계 및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 경향, 관련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청년기 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옥(1983).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대학생과 근로청년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 김은자(1978). "남녀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 원우론집, 6집, 23-50.
- 3) 성연자·정연강(1984).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의대지, 9(3).
- 4) 옥선화·정민자(1995). 결혼과 가족. 하우출판사.
- 5) 이귀현(1985).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녀공학 고 1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이상주(1977).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조." 국가발전과 청소년. 행동과학연구소:서울청소년회관, 73-100.
- 7) 이인숙(1994). "일부 대학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연

- 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중앙일보(1995). 한국인 변화하는 의식. 4월 15일, 9면.
  - 9) 차재호(1977). "청소년기:그 발달과 욕구." 국가발전과 청소년. 행동과학연구소:서울청소년회관. 49-71.
  - 10) 홍문식(1989). 한국 청소년의 성실태 고찰.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1), 22-23.
  - 11) Bell, R.R. & Coughy, K.(1980).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Females, 1958, 1968, & 1978." *Family Relations*, 29, 353-357.
  - 12) Carroll, J.L., Volk, K.D., & Hyde, J.S.(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 Females in Motives for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 131-139.
  - 13) Cate, R.M., Long, E., Angera, J.J., & Draper, K. K.(1993). "Sexual Intercourse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2, 158-164.
  - 14) Delamater, J.D. & MacCorquodale, P.(1979). *Premarital Sexuality : Attitudes, Relationships, Behavior*. Madison, Wisconsi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15) Forste, R.T. & Heaton, T.B.(1988).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among Female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19, 250-268.
  - 16) Kaats, G.R. & Davis, K.E.(1970). "The Dynamics of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390-399.
  - 17) Kelly, J.(1978). "Sexual Permissiveness:Evidence for a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455-468.
  - 18) King,K., Balswick,J.O., & Robinson,I.E.(1977). "The Continuing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55-459.
  - 19) Kinsey, A.C.(1948). *Sexual Behavior in Human Male*. Philadelphia : W.B. Saunders.
  - 20) Miller, B.C. & Bingham, C.R.(1989). "Family Configuration in Relation to the Sexual Behavior of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99-506.
  - 21) Miller, B.C. & Sneesby, K.R.(1988). "Educational Correlates of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1-530.
  - 22) Miller, B.C. & Moore, K.A.(1990).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25-1044.
  - 23) Peplau, L.A., Rubin,Z., & Hill, C.T.(1977). "Sexual Intimacy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33(2), 86-109.
  - 24) Reiss, I.L.(1967).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ew York : Helt, Rinehart & Winston.
  - 25) Reiss, I.L.(1960). *Premarital Sexual Standards in America*. New York : Macmillan Free Press.
  - 26) Robinson, I.E. & Jedlicka, D.(1982). "Change I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rom 1965 to 1980 :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7-240.
  - 27) Small, S. & Luster,T.(1994). "Adolescent Sexual Activity :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28-735.
  - 28) Sprecher, S., McKinney, K., Walsh,R., & Anderson, C.(1988). "A Revision of the Reis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21-828.
  - 29) Talmadge, W.C.(1985). "Marital Sexuality." In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 1, edited by L. L'Abate. The Dorsey Press.
  - 30) Vener, A. & Stewart, C.S.(1974).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Middle America Revisited : 1970-197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8-735.
  - 31) Zelnik,M., Kantner, J.F., & Ford, K.(1981). *Sex and Pregnancy in Adolescence*. Beverly Hills, CA :

- 
- Sage.
- 32) Zelnik, M. & Shah, F.K. (1983). "First Intercourse among Young American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5, 64-70.